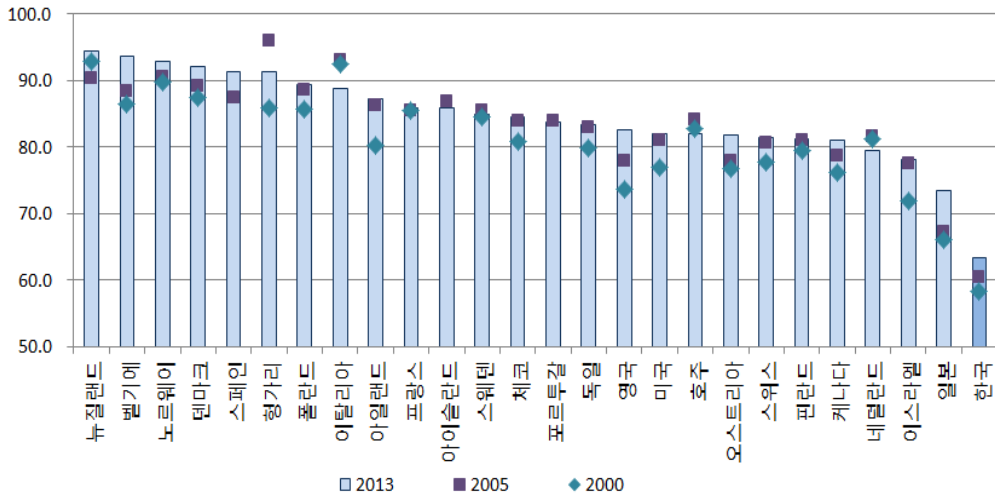


남녀 임금격차 국제비교

- OECD 국가들의 전일제(full-time)근로자 기준 여성의 상대임금(중위값 기준, 남성의 임금=100)은 대부분 국가에서 남성보다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이스라엘, 네덜란드를 제외한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80% 이상 수준에 있음.
 - 특히 뉴질랜드, 벨기에,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국가는 여성의 상대임금이 90%를 넘는 수준임.
 - 우리나라의 여성의 상대임금은 2013년 기준 남성대비 63.4%로 2000년 58.2%, 2005년 60.4%에 비해 소폭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임.

[그림 1] OECD 주요 국가의 남녀 임금격차(2000년, 2005년 2013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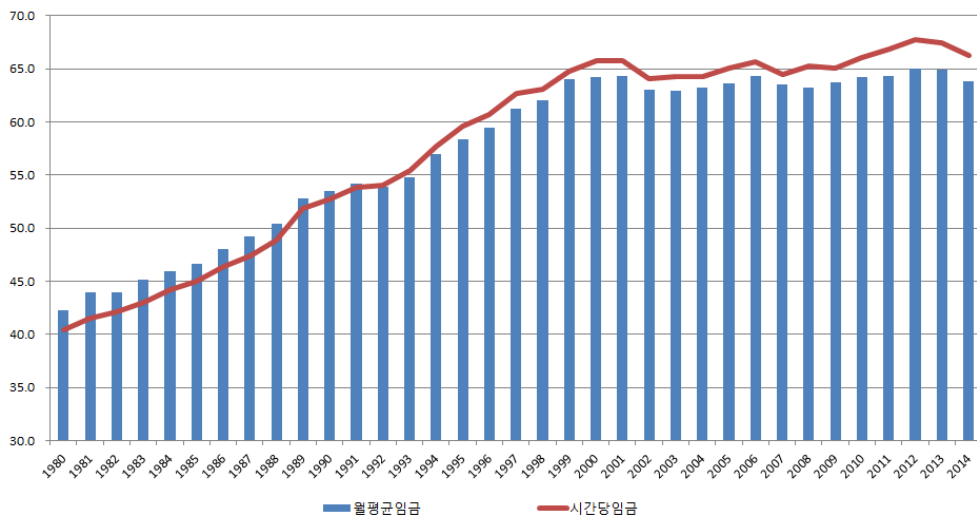
주: 폴란드는 2001년, 2006년, 2012년, 이탈리아는 2006년, 2012년, 스위스는 2006년, 2010년, 네덜란드는 2002년, 2006년, 2010년 값이고, 2013년 대신 2012년을 대체한 국가는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폴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핀란드이며, 2011년으로 대체한 국가는 아이슬란드, 독일, 이스라엘임.

자료: OECD, Earnings Database.

- 1980년 이후 여성의 상대임금수준을 장기추세로 보면, 1990년대 후반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다 2000년 이후 큰 변화 없이 65%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 비농전산업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를 포함한 총임금으로 계산함.
 - 1980년 남성 임금의 40%에 불과했던 여성의 상대임금은 1999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해 60%를 넘어 65%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름.
 - 그러나 월평균 임금 기준으로 볼 때, 2000년대 들어서는 남성임금의 65%를 넘지 못하는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 시간당임금으로 보더라도 국제금융위기를 거친 이후인 2009년 이후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2년 이후 다시 상대임금은 감소함. **KLI**

[그림 2] 여성의 상대임금격차 추이(1980~2014)

(단위 : %)



주 : 소비자물가지수(2010=100.0)를 이용한 실질임금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정성미, 동향분석팀 전문위원)